

고급 양모의 대명사로 색스니

생후 6개월 이내의 어린 메리노 양의 털이 램울이다. 이것은 가늘고 부드러운 고급양모의 하나다. 고급 양모의 대명사로 색스니가 있다. 색스니라고 함은 독일의 마이센이 있는 지방, 작센의 영어 명칭이다. 그와 동시에 작센이 만든 색스니 메리노의 가늘고 부드러운 울을 말한다. 이러한 울을 영국으로 옮겨서 능직으로 짠 옷감이 색스니 플라노이다. 영국 종의 방모로 만든 플라노와 유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부르게 되었다. 150년전 경에는 작센은 양질의 울은 최대의 생산지이고 수출지였다. 오스트랄리아에 지위가 바뀐 오늘날에는 색스니는 고급 이미지의 명칭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따라서 색스니라는 이름이 붙어있어도 작센산의 색스니 메리노 울을 사용한 옷감은 아니다. 그의 대부분은 오스트랄리아의 메리노 울을 사용하여 색스니 품으로 만든 것이다. 특상, 상으로 되는 메리노 울은 작센으로부터 오스트랄리아로 옮겨진 색스니 메리노 양으로부터 채취하고 있다. 병급의 울은 오스트랄리아 양으로부터 채취된 것이다. 특히 많이 사용하는 중번수의 실은 페핑메리노 양으로부터 채취한 울로 만들어진다. 이러한 양으로부터는 많은 양이 채취되기 때문에 많이 사육되고 있다. 서민의 양이라고도 한다. 슈트 1벌 분의 옷감을 얻기 위해서는 양 한 마리의 양모를 필요로 한다고 한다.

요즈음은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 직물을 울라이크하게 제조하는 기술이 무궁무진하게 발전하여 울 생산에 관여하는 전문직이 아닌 판매직이라던가, 원사·연사·염색가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울 개버딘과 폴리에스테르 개버딘을 알아 맞추라고 한다면 이 정답을 거의가 알아 맞추지 못한다고 한다. 그만큼 합성섬유를 울라이크하게 발전시킨 기술자들의 공로도 있겠으나 그보다도 우리는 울다운 울 옷감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것은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별키화, 올라이크화, 코튼라이크, 실크라이크, 리넨라이크 등의 기술 진보에 따른 것인데 울 옷감의 좋은 태를 맛보지 못한 어패럴 판매업자라던가 기획하는 사람에게는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로써 올라이크화한 직물이 보다 올답다고 느껴진다던가,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로써 실크라이크화한 직물이 보다 실크답다고 느껴진다던가,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로써 코튼라이크화한 직물이 보다 면답다고 느껴진다던가,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로써 리넨라이크화한 직물이 보다 리넨답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울로 만든 옷감을 바로 이것이 울로 만든 옷이다라고 하는 태를 느끼지 못한 사람은 울도 폴리에스테르도 같아 보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폴리에스테르 제품이 더 좋아 보이기도 하고 유지 관리하는데도 수고가 들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폴리에스테르 제품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더 좋아 보이고, 수고가 들지 않고 유지 관리하는데 편한 것은 당연한 것이기도 하고 이것이야말로 합섬 메이커의 마케팅의 승리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메리노 엑스트라 파인 울이라던가 메리노 파인 울을 사용한 옷을 입어 본 사람이라면 폴리에스테르와의 차이는 확실히 질 것이다. (야말화지(野末和志))